

“1억 5천짜리 차 파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포르쉐지회, 기본급 인상, 조합원 차별 철폐 등 요구.. “상식에 맞는 임금인상안 제시하라”

값비싼 수입차인 포르쉐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고가의 스포츠카를 판매해도 돈은 포르쉐코리아가 벌고 판매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적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판매하는 포르쉐 차량만큼 ‘반짝 반짝’ 하지 않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포르쉐지회는 11월 1일 서울 서초구 포르쉐센터 서초지점 앞에서 ‘포르쉐지회 2018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포르쉐 판매노동자들은 ▲기본임금 인상 ▲투명하고 상식적인 영업환경 보장 ▲조합원 차별성급, 인사, 징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2016년도부터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3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포르쉐 판매노동자들은 기업노조로서 교섭과 투쟁에 한계를 깨닫고 지난 6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3년 만에 총액기준 4억



원의 3년 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한 명 당 월 37만 원이다. 나머지도 퇴직금 인상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인상액이다. 여전히 2019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이다.

김창균 포르쉐지회장은 대회사에서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3년 동안 임금체불을 하더니 퇴직금을 포함한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섭을 하지는 태도인지 모르겠다. 퇴직금 올랐으니 나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분노했다. 김창균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상식에 맞는 임

금인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김도현 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자가 힘들여 많은 차를 팔면 팔수록 포르쉐코리아는 이익과 함께 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를 빼앗았다. 노조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치점에서 일하는 오호정 조합원은 투쟁사에서 “회사는 한해 수천억 원 매출을 올리는 직원들을 조선 시대 노비 취급한다. 지점장과 이사들에게 술대접이나 하는 조선 시대 노비로 돌아갈지, 아니면 단결해서 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안정된 직장을 만들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포르쉐코리아 요구 내용과 투쟁 결의를 적은 종이를 서초지점 유리창에 붙이는 실천 투쟁을 전개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과 직접 고용 최종 합의

2019년 1월 1일부터 삼성 노동자 ... 수리직무, 지원직무 각각 임금체계·직급체계, 복리후생 등 합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과 직접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와 11월 2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직접 고용 조인식’을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조인식 인사말에서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동조합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을 이쁘게 하면 내가 이쁘고 노동조합도 이쁘

다. 우리 조합원들이 투쟁과 교섭으로 직접 고용을 쟁취해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회 조합원들은 기존 업체와 근로관계가 끝나고 2019년 1월 1일 자로 삼성이 직접 고용한다. 채용대상자는 2018년 4월 17일 재직자 기준 협력업체 정규직과 근속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수리직무 조합원과 지원직무 조합원에게 각각 별도의 직급체계, 승급기준, 임금체계 등을 적용한다. 임금 이외에 경조사

건강검진 의료비, 학자금, 휴거비, 구매했던 등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콜센터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은 지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스’를 만들어 고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는 4월 17일 직접 고용에 합의하고 여섯 달 넘게 실무교섭을 벌였다. 10월 24일 의견접근안에 합의하고, 총회를 거쳐 11월 2일 조인식을 열었다.